8.15광복과 해외영어연수

(눅17:20-21)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8.15광복과 해외영어연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8.15광복과 해외영어연수'
이 두 사건은, 사실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두 사건에서 굳이 비교해 보면서 차이점을 발견을 좀 해봅니다.
8.15광복은, 한반도 전역에 방방곡곡 기쁨이 넘쳐 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쁨으로 8.15광복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힘을 쓰거나 애를 쓴 사람은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현장 속에 광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펼쳐져 버렸고, 모든 사람이 그 사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8.15광복의 기쁨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영어 해외연수는,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8.15광복절이 주어졌고, 내 마음에 그 기쁨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리 영어로 왁자지껄하는 시장통에 들어가 있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어가 내 입에 붙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어적인 환경 속에 깊이깊이 들어가도, 내가 영어를 하려면 영어자체가 나 개인에게 따로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짧지만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그냥 별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본문인데, 주님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고 당신도 또 부인하지 않는 바, 메시아인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한 질문이지만, 당연한 질문이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온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도달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부딪친 문제나 어려운 갈등이나 환란을 예수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발견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질과는 전혀 다른 질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도달점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일.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냐 하면 8.15광복절과 같은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으로, 다 복속시키고 주변을 다 정복하고, 슈퍼 강대국으로 선민의 나라 유대나라가 등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변혁과 사회적인 어떤 혁명적 변화를 동반하는 하나님나라의 임함을 바리새인이 꿈꾸고 있습니다.

뭐 8.15광복이나 아니면 5.16혁명이라고도 하고 5.16사태다 쿠데타다, 역사가들이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데 왈가왈부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8.15광복절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4.19혁명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5.16쿠데타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너희 안'이라는 게 뭘까요?
특히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너희 안에 있다'
그것도 또 제자들 속이라면 혹시 그냥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텐데, 바리새인을 가리키면서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부딪힐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의 'among' 그들 사이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 중에 있다, 너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있다.
근데 너희들이라는 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안'이라는 말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라는 말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에 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듯이 그렇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끝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기준으로 해서, 바리새인들 너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결국 바리새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경계선으로 해서 관찰이 되는 영역이 밖이라면, 너희들 마음을 경계로 해서 이 몸의 5감관으로 관찰되고 감지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밖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서는, '너희 안'이라고 할 때 그 '안'이라는 헬라어가 '엔토스 휘몬', '휘몬'은 '너희들'이라는 복수거든요, 이인칭 대명사의 복수형태인데, '엔토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within'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in'이라고 하는 말, '안'이라고 우리는 할 때 흔히 쓰는 'in'에 해당되는 것은 '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
근데 이건 '엔'이 아니라 '엔토스'입니다.
'within' 이라는 거예요 'within'
여러분 within이라는 영어의 단어와 in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좀 아십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애 먹지 않았어요? 두개의 차이를 구분 하느라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I have done it' 나는 그걸 이루었다 'within 10 days'
그리고 'I have done it in 10 days' 하면 차이가 뭡니까?
'within 10days' 하면, 10일을 경계로 했을 때 그 안쪽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룬 것일 수도 있고, 삼일 만에 해치운 것일 수도 있고, 오일 만에 해치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 have done it in 10 days' 하면은, 10일 만에 그걸 했다는 얘기에요.
'within 10days'는 이틀 안에 할 수도 있고, 삼일 안에 할 수도 있고 10 days가 경계선이 되어서 그 경계선 안쪽이라는 얘기이고, in 10days란 얘기는 10일을 꽉~ 채운, 10일 만에 그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인격, 너희의 마음이 경계선이 되었는데, 그 경계선 바깥이 있고 경계선 안쪽이 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너희 경계선, 마음의 바깥쪽 그러니까 마음의 바깥쪽으로는 몸이 있고, 마음을 경계선으로 했을 때 그 경계선 바깥쪽으로 몸이 있고, 몸에 눈이 달려 있는데, 너희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근데 어떡하나?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을 경계선으로 했을 때, 이 몸의 오감관이 캐치할 수 없는 뒤쪽으로, 안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있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너희는 전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경계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기대하지만, 8.15광복절처럼, 4.19혁명처럼, 5.16쿠데타처럼 이 사회에서 인간세상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 사건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나라는 정작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그 마음의 안쪽,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말하면, 그 마음의 뒤쪽으로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막~ 인류역사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떡 먹고 생선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하나님나라가 임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그 마음 안쪽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과 만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 바깥쪽으로 몸과 몸 바깥쪽에 이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만, 해외영어연수 때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뻗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으로 오신 당신에게 임하신 것처럼,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당신의 안쪽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모두 각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고 이 역사를 펼치시는 거지, 오병이어의 현장을 펼치셨다고 그것이 곧 광복절처럼 그렇게 광복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외영어연수를 갔을 때처럼, 아무리 영어가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 환경 속에 있어도, 영어가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한마디도 영어로 말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그 마음 바깥쪽, 몸이 있고 몸의 5감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광복절처럼 5.16쿠데타처럼 그렇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있을 때, 내가 그 속에서 유토피아에 임하는 것처럼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마는, 그 세상을 유토피아로 바꾼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순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평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복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 안쪽에 와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마음 안쪽으로 마음 뒤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어디에서 기대하냐 하면, 이 눈이 보이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자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음이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돌아서서 마주해야 하나님 나라를 끌어안지요.
근데 항상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이 바깥쪽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 속에 하나님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하나님나라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나라를 등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가슴으로 껴안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보고 있는 이 바깥쪽,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몸이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바깥쪽의 영역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천하 모~든 것들을 바라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바깥쪽으로,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고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차단되어 버릴 때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등을 돌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냐 하면, 천국이 딱 와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을 향해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세상 바깥 마음을 경계로 바깥쪽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을 방향을 돌이켜 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딱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신 그 천국이, 실제 천국이 실제 딱 와 있어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이 몸의 세계 이 바깥 세계에서 뭔가 하나님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사업이 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업장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딸의 변화에서 만나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전 하나님 나라를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8.15광복절과 5.16쿠데타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만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만나라고, 너희 마음 안쪽으로, 너희는 지금 이 마음 바깥쪽으로만 내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희 마음 안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개별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회전체를 변혁시켜 이 사회나 역사 속에서 유토피아 같은 하나님나라를 만들자고 오신 게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가장~ 뛰어난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 사회는 유토피아로 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지나자마자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교회에.

그러나 마음 바깥쪽에 있는 세상에서는 지금 핍박이 주어지고 있지만, 마음 안쪽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들이 흩어지면서, 온~ 천하에 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쪽에 와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손끝에서 이 바깥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또 그들의 마음 안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개혁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도, 종교개혁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교황의 권세 밑에 신음하던 세속 봉건 영주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 종교개혁이 유럽전역에 지진처럼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 진짜 누가 마음 안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개별적으로 만났겠는가는 의문이라 이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써낸 종교개혁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정말 마음 안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몇 사람이나 받아 들였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역사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변혁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틀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깥으로 빼버리니까.

오히려 지금이 개혁하기가 좋아요.
인터넷으로 지금 각 방에서 각자 혼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각 방에서 혼자 들으면서, 그 마음 안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등을 돌려서, 가슴으로 하나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나라를 만나세요.
자꾸~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가들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 키우는 엄마는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경계로 바깥세상에 마음을 자꾸 쏟아내

지 말고, 그 마음을 경계로 안쪽으로 이 세상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등을 돌리면, 바로 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나라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의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통과해서 내 몸과 손끝으로 해서 하나님나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해서 사는 것, 이거 내 일이에요, 내 일.
그게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또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경계로 했을 때,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을 향한 시선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중단하고 등을 돌려서, 등을 돌리자마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내 기업으로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경계로 바깥쪽에 내 눈으로 관찰한 수 있는 영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경계로 그 뒤 안쪽으로 임하는 것임을 알고, 마음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고 껴안을 수 있는, 이 경이로운 축복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